

촛불꽃, 봄을 부른다



◀'LIGHT
금남로'

우제길 96번째 개인전 '2017 LIGHT 140-6'...2월 15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캔버스 옮겨 담은 촛불집회 현장 감흥 '겨울밤 이야기' 등 신작 20여점 선보

“그동안 미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은 광주·광화문 등 전국에서 피어난 촛불꽃이 세상을 환히 비췄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추상화가 우제길 화백은 자연스레 현장에서 본 감흥을 캔버스에 옮겼다. 일렁이는 촛불을 표현한 알록달록한 작품들은 시대의 아픔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 화백이 우제길미술관에서 96번째 개인전으로 새해를 연다. 2월15일까지 '2017 LIGHT 140-6-꽃빛으로 봄을 부른다'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 우 화백은 지난해 촛불집회 등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테이프를 이용해 콜라주 형식으로 빛을 표현한 기존 작품과는 달리 신작은 빛을 이

용해 국민 염원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전시장은 한편의 이야기를 따라 작품을 배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9.1m·세로 1.5m 대작 'BLACK 2016-겨울밤 이야기'다. 칙칙같은 겨울밤을 배경으로 광화문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를 담았다. 곳곳에 자리잡은 건물, 사람들이 들고 있는 촛불, 환하게 빛나는 핸드폰 화면 등을 화폭으로 옮겼다. 현시대는 겨울밤처럼 어둡지만 캔버스 안 환한 색채처럼 언젠가는 밝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겨울밤 이야기'에 이어 봄을 부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LIGHT 2016-봄'은 화면 가득 연둣빛과 어우러진 현란한 색채로 봄 소식을 전한다. 우 화백은 봄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보고 희망과 정의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전시 주제는 작품 '나만의 태극기'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전통 재료 한지에 그린 이 작품은 중간에 배치한 태극기를 수많은 빛들이 비추고 있다. 빛 하나하나를 국민 개개인을 형상화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를 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기원하는 작품이다.

그밖에 금남로 촛불집회를 모티브로 작업한 작품 'LIGHT 2016-금남로'도 눈에 띈다. 금남로 촛불집회 사진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주위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둘러싼 모습이다. 한국 전통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나란히 설치한 'LIGHT 2016-12A', 'LIGHT 2016-12B' 연작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서려있다.

전시장 중간에 배치한 아카이브 자료도 빼놓지 말고 봐야 한다. 1955년 광주서중학교 시절 전남 도청, 계림동, 충장로 일대를 스케치한 작품들과 그동안 열었던 전시회 도록 등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우 화백은 “광화문, 금남로, 그리고 전국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새해에는 더욱 밝고 힘차게 우리를 감싸주리라고 믿는다”며 “희망찬 빛을 기원하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우 화백은 한국 추상화단 1.5세대로, 문화체육부장관공로상(1994), 육관문화훈장(2004), 예총예술문화상 대상(2002) 등을 수상했다. 국내 3대 비구상 미술그룹으로 꼽히는 '사(사)예보'의(1964년 창립) 초창기 멤버로 현재까지 몸을 담고 있다. 문의 062-224-66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서경숙 작가 천연염색 작품전 18일~2월 17일

18일 미니브로치 만들기 무료 체험도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오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서경숙작가의 '천연염색 생활소품' 작품전을 개최한다.

서경숙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천연염색 생활소품'이라는 주제로 천연염색한 섬유와 끈사를 이용한 전통매듭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ACE Fair, 서울 기프츠쇼, 우수중소기업 시제품·수공예품 전시회, 디자인 비엔날레 아트마켓 전시회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 개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에는 시민 대상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천연염색의 광목천과 자수, 비즈를 이용해 얼굴 캐릭터를 그린 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수를 놓고 비즈를 가미한 장식용 미니브로치를 만들어 본다. 참여 희망자는 17일까지 홈페이지(www.gjwf.or.kr) 및 팩스(670-0505)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93세 김기운 할머니 5번째 개인전 내일까지 임소운 갤러리

올해로 93세를 맞는 김기운 할머니가 13일까지 임소운 갤러리(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5번째 개인전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른다'를 연다.

취미 생활로 손녀가 놓고간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부터 그동안 그린 작품 500여점 중 선별해 전시를 열고 있다. 갤러리를 빼곡히 채운 작품들은 김 할머니가 만난 정감 어린 소재들을 그렸다. 화단에서 키우고 있는 꽃 화분부터 가지·오이·고추·수박 등 야채, 꽃으로 둘러싸인 자택, 손녀, 손주 얼굴까지 마음 속 이야기들을 담았다.

또한 오서산, 상봉산 등 어릴 적 할머니가 뛰놀던 고향 풍경도 등장한다. 전문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알록달록 색칠한 산들은 마치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간 듯 동심이 가득 느껴진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부터 광주 사직도서관 갤러리, 양림미술관 등에서 아들 김을현 시인 등 가족·지인 도움을 받아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603-8945. /김용희기자 kimyh@



김동인 '나무로봇'전 30일까지 갤러리 리체



'나무로봇' 시리즈

나무로봇을 통해 피폐해지는 자연과 인간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김동인 작가가 30일까지 갤러리 리체에서 '나무로봇'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무로 만든 로봇, 탱크 등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나무로봇' 시리즈는 기계적인 이미지와 자연적인 나무를 조합해 환경오염을 대 한 심각성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강인한 로봇 이미지부터 에니메이션 '월E'에 나오는 귀여운 로봇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나무로봇이 탄생하는 나무정령과 변신이 가능한 로봇 등

과거보다 스케일이 커진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은 구매할 수도 있다. 소형 로봇(높이 15cm)은 1만원대부터 대형(60cm)은 최대 70만원에 판매한다. 또 15개 한정으로 나무명함통은 1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도 연다. 방문객들은 김 작가와 함께 '나만의 나무로봇'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체험료 5000원.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2006 '제6회 광주 비엔날레'에 '슈카르트'팀 소속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어른 아이들의 취미생활'전(금북미술관), '조대 미술 70년'전(조선대미술관)에 참여했다.

한편, 갤러리는 27~29일 휴무이며 30일은 문을 연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하·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